

■ 괴운(槐雲) 칼럼



### 시재망작(恃才妄作)과 확증편향(確證偏向)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시재망작(恃才妄作)과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시재망작(恃才妄作)이다. 이는 재주를 믿고서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뜻이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에 분성괄(盆成括)이란 사람이 제나라 관직에 임명되자 맹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 "죽겠구나! 분성괄이여"라고 했다. 그 얼마 뒤 괴연 분성괄이 살해되었다. 맹자의 제자들이 예언이 들어맞은 것을 신동하게 생각하여 맹자에게, "선생님께서서는 분성괄이 살해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됨을 보면 재주는 조금 있지만, 君子의 큰 도리를 듣지는 못했다. 그렇게 처신하면 충분히 그 자신을 죽일 수 있지"라고 했다. 군자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관계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거저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 신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사물을 사랑하고, 국가사회를 생각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근면한 일 등등이 바로 군자의 도리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재주 있는 것을 믿고서 교만을 떨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디 사람 모인 장소에 가면 자기 얼굴이나 이름 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군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남을 속이려 해도 자기의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피해도 크지 않지만, 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려고 마음먹고 교묘하게 지혜를 짜내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게 된다. 마치 사나운 호랑이에게 날개까지 달린 격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주는 필요한 것이다. 인류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다 개인의 재주에서 출발한다. 재주 자체가 나쁜 것

은 아니다. 재주는 무시하고 도덕만 강조해도 이 세상은 움직여질 수 없다. 그러나 재주는 도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도덕이 뒷받침 되면, 재주를 믿고 함부로 날뛸 수가 없는 것이다. 재주만 있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분성괄 처럼 자기 몸도 보전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이 나라 정치를 맡으면 머잖아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계나 학계에는 재주를 믿고 멋대로 설쳐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 정계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 점점 발언권을 잃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도덕적 수준이 날로 저하되어 간다는 증거이다.

다음은 확증편향(確證偏向)이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는 심리학 용어(心理學用語)이다.

사람들은 자신(自身)의 가치관(價値觀), 신념(信念), 판단(判斷) 따위와 부합(符合)되는 정보(情報)에만 주목(注目)하고 그 외 정보는 무시(無視)하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다. 예를 들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 석잔의 커피가 장수(長壽)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記事)를 믿지만, 커피에 있는 카페인(caffeine)이 교감신경(交感神經)에 미치는 부작용에 관한 기사는 무시하려고 한다.

정치(政治)하는 사람들을 보면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A당에 우호적(友好的)인 기사를 찾아서 읽고 그 내용에 동의(同意)하지만, A당에 반대하는 기사나 주장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情報)만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론(理論)이나 설명을 강화(強化)시켜주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이런 확증편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眞理)라고 생각한다.

확증편향은 마케팅(marketing) 분야에서는 유용한 분석도구(分析道具)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지난날 한 번쯤 들어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廣告)나 브랜드(brand)다. 기업들이 항상 잘 팔리는 제품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계속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예컨대 코카콜라를 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탄산음료인데도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광고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맛이 뛰어나서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눈과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한번 각인(刻印) 되면 사람들은 다른 좋은 선택지가 보여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 잘못된 것까지도 고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입견(先入見)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입관(先入觀)이나 확증편향(確證偏向)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한(有限)한 인간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유념해야 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은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못 보는 세계가 훨씬, 무한(無限)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謙遜)한 마음으로 우리의 무지(無知)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유념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권문들도 자기 재주만 믿고 만능을 부리는 시재망작(恃才妄作)이나, 확증편향(確證偏向)의 선입관에 벗어나 도덕심과 겸손,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명(賢明)하고 지혜(智慧)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도 공학적으로 적분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면벽하는 저자에게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는 권독용의 시는 다양한 사물이나 상황과의 끊임없는 교호를 통해 근원적인 삶의 원리를 해석해 가는 체험적 기록이자 존재론적 역설로 써가는 사랑의 신탁이라고 평한다.

저자는 공학박사이자 시인이자 시낭송가이다.

권영환 편집국장

■ 이달의 책

### 면벽面壁

/ 권독용



권독용(재)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이 면벽面壁을 출간했다. '책 목이 예사롭지 않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몸과 마음이 다다다. 제2부 그대, 악마의



하는 것이 아니다.

모습을 본 적 있는가. 제3부 궁금해졌다. 제4부 여름이 가 오다. 제5부 동화를 쓰면서, 제6부 그림을 적분한다.

그러나 시는 면벽1부터 면벽30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벽면을 마주하고 면벽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도 공학적으로 적분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면벽하는 저자에게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는 권독용의 시는 다양한 사물이나 상황과의 끊임없는 교호를 통해 근원적인 삶의 원리를 해석해 가는 체험적 기록이자 존재론적 역설로 써가는 사랑의 신탁이라고 평한다.

저자는 공학박사이자 시인이자 시낭송가이다.

권영환 편집국장

### 2024년 안동권씨원로원 정기총회 개최



2024년 안동권씨원로원(元老院: 의장 권재주) 정기총회가 3월 22일 오전 11시 안동권씨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로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권재주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주연 고문,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정호 동정공파 회장, 권중덕 전 시공공파 회장, 권기만 전 정조공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만 80세 이상 원로원 회원, 권기창 안동시장 부인이 참석하였다. 안동시장 부인은 올 들어 원로원 어른들을 처음 뵙는다며 단상 위로 올라가 큰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시조 묘소 망배, 상유례, 회장 인사, 축사,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재주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2년 12월 8일 원로원이 창립되고 안동총친회 창립 이후 처음 동해안 쪽으로 관광을 갔으며 선물까지 받았다"고 회고하고 "고마운 뜻에서 박수를 치자"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을 잘 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권철환 총친회장은 축사에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주범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후 "오는 5월 4일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에 임원환자를 제외하고 안동권씨가 모두 시민운동장으로 나와 본향(本鄉)인 안동의 위력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이어 권기원 사무국장은 "작년 5월 18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해안인 울진~삼척까지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는 등 모두 6건의 경과보고를 했다. 권영수 감사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결산 내역을 감사한 결과 정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보고했다.

기타 토의에서 원로원의 회기년도가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인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올부터 회기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원로원의 올 관광은 전국체육대회를 끝내고 조용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기로 합의하고 날짜와 장소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전국

체육대회 때는 안동부녀농사반원들이 모든 일을 하기로 했다. 총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고 주최 측은 물티슈 1통씩과 타월 1장씩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참석자들은 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고 등이를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근 보도부장



을 무시하였다. 혁명사관은 인간을 물질과 법칙의 종속물처럼 다름으로써 물질과 법칙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자주성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사관에 반발하고 지, 정, 의 통일체로서의 생명의 성장과정으로서 역사를 다루고 생명의 직접적인 체험의 표현으로서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활학의 사관이다. 틸타이, 베르그송, 짐멜 등 대표다. 본 사관의 맹점은 역사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마저도 단순한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서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인간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된 점이다. 그리하여 생 그 자체의 고통에서 해방과 본래적 자기회복의 길을 찾는 실존주의가 출현하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용 대중회 부회장(적운공파 38세)

#### 4) 혁명사관(유물사관)

공산주의 역사관으로서 신의 섭리를 부정하고 정신의 발달 기술의 발달에 의한 역사의 발전 이론도 반대한다. 공산주의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물질적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한다.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고정화에서 오는 필연적 투쟁, 즉 계급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변증법을 역사발전적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물질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투쟁의 관계로 보고 있다.

역사의 도달점은 공산사회이며 여기서는 인간의 모든 이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사회의 전 단계라는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심한 모순과 폐단이 드러나서 인민들은 고통당하고 있다. 또 섭리사관을 반대하면서도 섭리사관을 뒤집은 듯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즉 신의 섭리에 맞는 물질(생산력... 무신)의 발전, 천사와 악마의 투쟁에 해당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어의 투쟁, 심판과 역사의 종말에 맞먹는 혁명과 계급사회의 종말, 천년왕국을 방불케 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 등이 그것이다.

#### 5) 생활학(生活學)

진보사관은 지나치게 합리주의에 흘러서 인간 생활의 일면(이성적인 면)만을 다루고 생명, 감정 등의 생활

### 안동권씨 대중회 장학금 구좌 모집 안내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매년 자라나는 우수한 후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능동장학회와 더불어 뜻있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구좌를 후원받아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후손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죽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구좌 신청 :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 신청 일시 : 2024년 2월 1일 ~
- 후원 금액 : 1구좌당 100만원(해당 장학금 수여는 후원자 명의로 지급)
- 지급 시기 : 5월 정기총회 시
- 계좌번호 : 농협 301-0343-6793-41 예금주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 ※ 특히 장학금 구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는 장학기념비 설립 시 그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금 후원 내역(3월 25일 11시 현재)

- 〈24.3.06〉 권정환(상주) 100만원
- 〈24.3.12〉 권영창 대중회장 1,000만원
- 〈24.3.17〉 권무탁 부회장(대영교육재단 이사장) 100만원
- 〈24.3.18〉 권재혁 고문(연성대학교 이사장) 100만원
- 〈24.3.21〉 권태복 상임위원(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100만원
- 〈24.3.22〉 권봉도(능동장학회 감사, 현대통상 대표이사) 100만원
- 〈24.3.25〉 권정선(능동장학회 이사) 100만원

합계 : 16,0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 안동권씨 대중회

### 서울지역총친회 봄나들이 안내

회원 여러분! 약동하는 봄을 맞아 '동구릉'으로 봄나들이 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 잎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떼 종중중 / 봄나들이 갑니다

- ♣ 일 시 :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11시
- ♣ 나들이 장소 : 동구릉(구리시 동구릉로 197)
- ♣ 집합장소 : 경의중앙선 구리역 광장
- ◆ 연락처 :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24년 4월 1일

### 안동권씨 서울지역총친회 회장 권영복

### 서울산악회 제336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4월 21일 10시(시간엄수)
- ♣ 장 소 : 공향철도 검암역 1번 출구
- ♣ 산행지 : 인천계양산 둘레길
- ♣ 준비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순희: 010-3797-1874

2024년 4월 1일

###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